

‘환경관리’, 그건 바로 저의 天職입니다

■ 편집부

좀체 쉽게 말을 할것같지 않은 인상처럼 약간은 뚝뚝한 말솜씨. 하지만 그의 넉넉한 체구에 걸맞게 시원스러웠다.

黃鍾八환경관리인. 지난 6월4일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장에서 환경관리장 동장을 수상했던 그를 대구 협립제작소에서 다시 만났다.

뒤늦게나마 수상소감을 묻자, 그저 송구스럽다고 겸손해 하는 黃관리인은 산업장내 음지에서나마 창조적인 기술개발로 이땅의 산하를 보전하는 일에 일조한다는 자긍심하나로 10여년 간 이곳 현장을 일구고 있다.

원래 그의 전공은 임상병리. 학교졸업후 얼마간은 전공을 살려 보건분야에서도 일을 했었다. 그러나 우연히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78년도에 수질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예 전업을 했다.

넘기힘든 고비도 많았었고 지금도 어려움이 없진않지만 ‘환경관리’를 선택한 그의 결정엔 결코 후회가 없다.

“현실과 법과의 괴리로 인해 야기되었던 사항을 상사에게 설



▲ 산업장내 음지에서나마 이땅의 산하를 보전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10 여년간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黃 관리인

명했으나 해결이 되지않아 환경 업무에 곤란을 겪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10여년 근무하면서 3번이나 사표를 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항상 밟고, 밟고, 등 글에 그리고 또한 바르고 고르게 살자는 그의 생활신조에 따라 환경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가 족할뿐이다.

黃관리인이 몸담고있는 협립제작소는, 지금의 이현동으로 이전한 '78년 당시 폐수처리장을 전면 설계 시공해 별문제없이 방지시설을 가동해왔으나, 양산과 우산을 생산하는 제조공정특성상 여러 종류의 고농도 중금속폐수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의 완벽한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됐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측의 적극적인 투자로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 개선, 증설한 결과 지난 8월부턴 지금까지 해온 수처리보다 훨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기방지시설의 경우도 도금장 가스방지시설, 연마반 집진시설등을 갖추고 적정처리에 노력하고 있다.

현장에서 인사를 나누게 된 본사의 李在喆총무부장은 서슴없이, 그를 가리켜 책임감이 강한 성실한 사원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바쁜 나날이지만, 그는 대구·경북협의회의 부회장직을 맡아 회원상호간 기술정보교류 및 친목도모에도 분주하다.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하여
환경 업무에
전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수상한
의미일테니까요…”

해 일간지에 투고한 적도 있다. 할말은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환경관리인들로 말하자면, 엄연히 국가가 인정한 기술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련법상 사업주의 양별규정으로 인한 사기저하, 기능직사원에 못미치는 대우, 게다가 투자설비문제로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하는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같은 대접을 받고 있지않습니까?”

환경관장 수상후 동료들에게 월급의 절반을 상턱으로 소비해 하나밖에 없는 턱이 찌그러졌다고 염살을 하기도 했다. 스스로 술을 취미라고 말할정도로 그는 사실 술을 대단히 좋아하는 애주가다.

술 외에도 당구, 도박성있는 잡기등 주로 마누라가 하지말라는 것들이 자신의 취미라는 엉뚱한 얘기도 주저없이 하기도 하지만 두 딸내미랑 사랑스런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회보에 실었으면 좋겠다며 사진을 슬쩍 내미는 너무나도 가정적인 보통남자이기도 하다.

그는 땀흘려 일하고, 적당한 여홍을 즐길줄 아는 사람이다. 黃관리인이 협립제작소의 환경과장으로서 근무처의 환경관리를 모범적으로 해왔고, 협의회 일 또한 의욕적으로 동참하고 있는것 모두가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런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하여 환경영무에 전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수상한 의미일테니까요…” ◀